

‘예술인 의회 설치’ 올해 정책 제안

광주문화재단 ‘백가쟁명’ 개최 시민네트워크 정책 발굴 프로젝트 문화 불평등 해소·사회 안전망 구축 차 없는 거리·빈집 활용 의견도

안전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의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올해의 ‘백가쟁명’ 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도시의 빈집을 팝업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차 없는 거리 등과 같은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문화재단(대표 황봉년)은 최근 문화정책 거버넌스 일환으로 ‘2023 백가쟁명’을 개최했다.

백가쟁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문화정책 거버넌스 시민네트워크가 광주시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발굴해 공문화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백가쟁명에는 모두 7개의 분과가 참여해 발굴한 정책을 협의하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앞서 올해 3월부터 예술인을 비롯해 활동가, 기획자, 시민네트워크가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발굴 과정을 거쳤다.

백가쟁명에는 모두 7개 분과, 각 정당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소중하당’(불평등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공정예술당’(안전하고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춤추는 대자보당’(교통), ‘문화예술일자리당’(일자리), ‘기후위기 약당’(기후위기), ‘같이잡시당’(도시계획), ‘삶은 예술이당’(문화다양성)이다.

이번 백가쟁명에서 올해의 정책으로 선정된 ‘예술인 의회 설치 및 운영’은 ‘안전공정예술당’이 제안했으며 총 184표 중 35표를 얻었다.

장도국 씨는 “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 평등 외에도 권리 보호, 안정적인 창작 환경 등 다양한 요구사항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기구가 필요하다”며 “예술인 스스로 문화행정의 협력으로 관련 정책의 수립, 실행, 점검, 개선의 과정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 의회’는 지역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문화정책 거버넌스 일환으로 ‘2023 백가쟁명’을 개최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수립 과정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예술현장의 권한 확대와 자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예술인 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과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접근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누구나 소중하당’ 분과는 문화예술시설 및 행사 접근성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계자는 “공공문화예술기관이나 시설뿐 아니라 소공연장, 생활권 문화 공간 등 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접근성 체크리스트는 물론 접근성 향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시설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지원단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평가나 행사평가, 계약 시 ‘접근성준비도’가 반영된다면 실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차 없는 길을 제안한 분과도 있었다. ‘춤추는 대자보당’에서는 집 앞이나 가게 앞자리를 ‘차 없는 길 100km’로 선정하면 재미와 사람이 넘치는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차 없는 길로 선정되면 주민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10m당 100만원을 지원하자는 의견이었다. 1km 일 경우 1억원을 차 없는 길로 지정해 이곳에서 이뤄지는 활동, 즉 문화나 놀이, 체육, 플라자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빈집을 생태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같이잡시당’ 분과는 오랜 시간 방치돼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광주형 스캷’을 제안했다. 광주형 스캷이란 빈집의 일부 공간을 예술 활동이 가능한 팝업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심 생태 축을 연결하고 공동체 두레 문화를 살려 생태적·인문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올해의 정책으로 선정된 ‘예술인 의회 설치 및 운영’ 제안을 네트워크와 함께 내용 등을 보완해 광주시, 시의회와 협력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황봉년 대표는 “백가쟁명에서 제기된 모든 정책은 나름의 가치가 있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한 정책네트워크 내용들이 무위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인들, 인문학 저변 확대 ‘합심’

진월복합운동장서 7일 인문학 한마당...남구 인문도시 자문 활동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양주) 회원, 광주대 문예창작과 학생들, 인문학 아카데미 수강생, 시인들로 구성된 축구단 글밭 회원 등이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이들은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인문 한마당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다.

우리나라와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오는 7일 광주 남구에서 인문학을 활용한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광주 남구 인문도시 조성 자문단’으로 활동에 나선다.

4일 남구와 광주전남작가회의에 따르면 2023 남구 인문학 한마당이 오는 7일 진월복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시인들로 구성된 축구단 글밭 회원들을 비롯해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나종영 시인, 김완 시인, 광주대 문예창작과 학생들, 인문학 아카데미 수강생, 주민 등 1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인문학 한마당은 시낭송회, 책 기증식, 위촉식, 친목 도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남구 인문도시 조성 자문단 위촉식과 문학인 저서 기증식, 시낭송회가 이어진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한국시인협회 이

사 및 시인 축구단 글밭 대표를 맡고 있는 김양노 시인과 축구단 회원들을 남구 인문도시 조성 자문단원으로 위촉한다.

지난 1991년 결성된 시인축구단 글밭은 시인들이 축구를 매개로 우애를 다지고 문학으로 소통하기 위해 꾸려졌으며 현재 한국시인협회 소속 시인을 비롯해 평론가, 출판사 대표 및 현직 교사 등이 몸담고 있다. 이들은 문학 활동을 통해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학인 저서 기증식도 예정돼 있다. 시인축구단 글밭 회원들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들은 사인을 담은 도서 150권을 남구청에 기증하며, 도서는 남구청 1층 북카페에 비치된다.

이어 광주·전남작가회의와 축구단 글밭 소속 시인 5명이 인문학 한마당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는 시 작품을 낭송할 예정이다.

2부 행사는 문학인과 지역 주민간 친목 도모 및 인문학적 소통 활성화를 위한 축구 경기로 채워진다. 시인축구단 글밭과 남구청 공무원 축구팀, 남구 여자FC, 광주대 문예창작과 축구팀 4팀이 출전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 가·무·악으로 떠나는 별이의 모험

전남도립국악단 ‘신화 같은 힘살...’ 7일 남도소리울림터



1장 파도가 실려온 이야기 ‘범피종류’ 대목을 공연하는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오래전부터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파도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풀어낸다.

바닷가가 오염되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용왕. 깨끗한 심해에 사는 전설의 푸른 고래만이 용왕을 낮게 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충신 별주부의 손자의 손녀 ‘별이’는 푸른고래를 찾아 모험을 시작하는데...

전남도립국악단 기획공연 ‘신화 같은 힘살-푸른고래 가·무·악’이 오는 7일(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은 각색된 별주부 전 연극에 흥부전, 심청전 등 판소리 레퍼토리, 가·무·악을 결합한 종합예술이다.

길을 헤매던 주인공 별이는 수다스런 등대지기, 흥부네 가족을 만난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남쪽 깊은 바다를 찾지만 그곳도 오염된 탓에 푸른고래를 만나기 쉽지 않다. 다행히 낯선 정령들이 나타

나 바다에 깨끗한 숨을 불어넣으며 생명을 되찾는다는 시놉시스.

파도에 실려 온 심청의 이야기 ‘범피종류’가 막을 연다. 이어 타무악 ‘미래의 기억’, 길에서 만난 인연들과 선보이는 ‘밧타령’, 설장구 협주곡 ‘밧침내 바다’ 등이 차례로 올려 퍼진다.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작품 ‘푸른고래’도 감상할 수 있다. 영상디자인에 라지용, 작곡에 류형선.

끝으로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몸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컨템포러리 연희 ‘푸른고래 판.ver.2’도 펼쳐질 예정이다.

총연출을 맡은 류형선 예술감독은 “전통 가·무·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예술 종합극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관람료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가사 노동·젠더 불평등 해법 찾기

광주여성재단, 내일 DJ센터서 포럼...종합토론편

가사노동과 젠더 문제를 다루는 포럼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여성가족재단)은 오는 6일(오후 4시 30분) 제13회 ‘세계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301호.

이번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이다. 그 일환으로 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며, ‘자본주의 축적과정에서 가사노동의 임금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실비아 페데리치(호프스트라대 명예교수)가 영상발제에 참여한다.

또 베트남 젠더 수석자문관 판 투 히엔도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베트남 정부 사례’라는 내용으로 영상발제한다. 이후 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도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가사수당’을 주제로 현장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종합토론편도 진행된다. ‘가정 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보상의 효과’를 이현아(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토론한다. 또 ‘가사노동의 유급화와 가사노동의 가치 확산’이라는 내용으로 장세레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에 박미정(광주시의회) 의원.

한편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월부터 여성전시관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문제’에 전착하는 기획전시회 ‘집에서 노는 여자들’을 선보여 왔다. 이번 포럼은 그 확장선에서 여성 가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재단 교류협력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